

내년부터 보험료 2~4% 인하 추진

중도 해지 계약 환급금도 늘어날 듯 금융위, 보험 사업비·모집 수수료 개선

정부가 내년부터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2~4%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할 때 고객이 돌려받는 해약환급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 ▲모집 수수료 제도 개선 ▲정확한 정보 제공 방안을 소개했다. 당국은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내년 4월까지의 사업비 개선 작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보험의 경우 저축성 보험 수준으로 사업비를 줄일 계획이다. 단 해약공제액 등은 현행의 70%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는 2~3% 줄고, 환급률(2차연도)은 5~15%포인트 개선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차대보험은 5차년 유지율이 절반 수준(57.7%)인 점을 감안해 사업비와 해약공제액을 현행의 70%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보험료는 3%가량 줄고, 환급률도 5~15%포인트 개선될 전망이다.

갱신·재가입 보험은 고연령에서는 과도하게 책정된다

보험산업 주요 개선방안

- W 보장성 보험의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
 - 보장성 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해약 환급금에 대한 사업비 개선
 - 차대보험 등 고령자 보장상품 사업비 개선
 -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 갱신사업비 축소
 - 사업비가 과도한 보험상품 공시 강화
 - 제3보험의 해약공제액 산출 일원화
- 계약자의 합리적선택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
 - 저·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 안내 강화
 - 보장성 보험의 연금전환특약 예시 강화
 -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
 -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 강화
-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 모집수수료 지급 기준 명확화
 - 모집수수료에 의한 적정계약 유인 제기
 - 모집수수료 분할 지급(분급) 방식 도입

↓

- 모집될수록 건전화·해약환급금 개선(보험료 인하)
-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 강화

자료/금융위원회

는 지적에 따라 사업비를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인다. 보험료는 3%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하는 상품의 경우 사업비를 공시한다. 종신 사망보험은 해약공제액 한도의

1.4배까지는 사업비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당국은 이 조치로 인해 2~4% 수준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내다봤다. 제3보험 해약공제액 산출 기준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일원화하기로 했다.

모집 수수료 지급 기준도 명확히 설정한다. 현행처럼 수수료로 먼저 지급하면 조기에 해약할 경우 과도하게 해약공제액이 책정돼 환급금을 덜 받게 되는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당국은 수수료 분할지급 제도를 병행하며 연간 수수료를 표준해약공제액의 60% 이하로 정할 계획이다. 또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 방식의 총액보다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분할지급 방식을 설계했다. 모집 수수료 제도는 시스템과 모집 조직의 소득 영향을 고려해 2021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또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오인을 개선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저·무해지 상품을 가입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고객이 직접 적도록 하고, 중도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향후 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 때 연금 전환 특약을 통한 연금액과 저축성 연금보험의 연금액을 비교·안내하고, 변액보험 수익률 안내 때도 보증비용을 차감한 실질 투자수익률을 알리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17.34 (-7.21)
- ↑ 금리(국고채 3년) 1.31 (+0.02)
- ↓ 코스닥 622.26 (-7.92)
- ↑ 환율(USD) 1188.50 (+5.40)

광주은행 '광주천 가꾸기' 봉사 시장 표창 수상



마재필(오른쪽) 광주은행 부행장이 이용선 광주시장으로부터 '광주천 가꾸기' 봉사 시장 표창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일 오전 광주시장에서 '광주천 가꾸기' 봉사활동으로 광주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지원하고, 대회 준비를 위한 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광주시의 '시민참여형 광주천 가꾸기' 사업에 광주은행은 지난 7월 4일 광주천 릴레이 봉사활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부서 및 지점별 릴레이식 봉사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공식 후원은행으로서 매 차례 전 임직원의 뜨거운 관심 속에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졌고, 현재 5주동안 광주천 주변 쓰레기 수거 및 잡초 제초작업을 진행하

고, 산책길 옆 회단을 조성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광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환경을 통해 다시 오고 싶은 광주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 봉사활동을 더 이어갈 예정이다. 광주은행 마재필 부행장은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우리 지역의 환경보호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동참했던 '광주천 가꾸기' 봉사활동에 뜻깊은 표창까지 받게 돼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 전 임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기아챔피언스필드서 물놀이 즐기고 레이싱 모델과 찰칵

금호타이어 핫서머 페스티벌

금호타이어는 3일부터 9일까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핫 서머 페스티벌'을 연다고 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필드 1루 쪽 미니수영장(가로 12m·세로 6m)에 어린이 워터슬라이드, 물대포 등 놀이기구들을 설치한다. 수영장 주변에 탈의실을 마련하고 구조요원도 배치한다.

금호타이어가 신차용 타이어를 단독 공급 중인 기아 신형 SUV 셀토스를 배경으로 금호타이어 전속 레이싱 모델과의 포토타임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한다.

수영장은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오

후 8시30분(주말 경기 8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까지 입장할 수 있다. 페스티벌은 기아 타이거즈 홈 6경기 동안 진행하며, 미니수영장 이용료는 별도로 받지 않는다.

김성 금호타이어 G.마케팅담당 상무는 "올해로 6번째 기아자동차와 함께 핫 서머 페스티벌을 마련했다"며 "경기장을 찾은 야구팬들에게 색다른 바캉스 이벤트를 통해 소통하고,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SUV 셀토스에 금호타이어를 단독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두 기업 간 협력과 시너지를 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아토피에 좋아요"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통기성이 좋고 오염 관리가 쉬운 가구 소비자의 주목을 끌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동구 대인동) 8층 소파 브랜드 '토레' 매장에서 1일 한 고객이 아토피성 피부염을 지닌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인 '알칸타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조달청, 5~9일 152억 입찰 집행

광주지방조달청이 152억원 규모 입찰을 오는 9일까지 집행한다.

1일 조달청이 발표한 '물품·용역분야 주간 입찰동향'에 따르면 광주조달청은 오는 5-9일 18건 152억원 규모 입찰을 집행한다.

광주조달청의 이달 둘째 주 입찰 규모는 전체(2622억원)의 5.8%로, 올해 누계분 점유율은 6.7%이다.

84억9500만원 규모 '전남지방경찰청 국

가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 선정 사업' 용역은 협상 계약으로 오는 9일 개찰한다. 화순에 있는 백신 생산대행기관 '미생물실증 지원센터'는 '백신 생산용 회수 및 세척 시스템'(9억여 원) 계약을 집행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8억원 규모 '금천지구 배수개선사업 지급자재 제정기' 물품구매 용역을 적격 심사를 통해 6일 개찰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 7개월째 0%대

호남통계청 물가 동향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일 발표한 '7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광주 104.13, 전남 104.55(기준값 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0.3%, 0.5% 상승했다. 전달보다는 광주 0.3%, 전남 0.4% 하락했다.

전년비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광주 0.5%, 전남 0.9%를 기록한 이래 7개월 연속 1%를 밑돌고 있다.

통계청은 0%대 물가가 7개월 연속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 경기 침체를 뜻하는 '디플레이션'이 아닌 '디스인플레이션'

이라고 설명했다. 디플레이션이란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경제 상황을 뜻한다.

품목별로 보면 광주·전남지역 쌀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올랐고, 돼지고기 가격은 내렸다.

광주지역 품목 성질별 지수는 농축수산물 1.5%, 공업제품 0.3% 각각 하락했고, 서비스 0.8% 상승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쌀 10.7%, 달걀 13.5% 각각 올랐고, 고등어 22.6%, 돼지고기 4.0% 각각 하락했다.

전남 품목 성질별 지수는 농축수산물 0.6%, 서비스 0.9% 각각 상승했고, 공업제품 0.2% 하락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쌀 9.3%, 갈치 20.9% 올랐고, 돼지고기 11.1%, 상추 28.3% 떨어졌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